

LPG 流通構造現代化 計剛에 대한 管見



金 鎔 植

〈韓國石油가스流通協會 · 常勤副會長〉

I. 머리말

LPG (液化石油가스)는 취급 관리에 있어서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公害가 적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利点등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연료의 고급화추세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가스普及擴大施策에 힘입어 우리 나라의 LPG 需要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73년에 겨우 96만 7 천배럴에 불과하던 LPG 需要는 83년에 9 백 98만 6 천배럴로 늘어남으로써 10년동안에 무려 10배 이상의 놀라운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에 수반되는 가스事故危害로부터 국민의 人命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安全管理對策이 未洽한 것이 현실로서 群小 가스공급업소의 안전관리소홀과 重量販賣에 따른 民怨惹起 등 前近代性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LPG 流通構造現代化計剛도 결국은 前近代의 충전시설과 공급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지난해 말에 공포·발효된 「液化石油가스의 安全 및 事業管理法」은 정

부의 가스안전관리장기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사실 현재의 가스流通構造가 가스공급업소의 영세성과 시설의 낙후로 容器的 안전점검 등 자율관리기반이 취약하고, 수송 및 안전장비가 미비하며, 容器的 소유 및 관리책임의 二元化로 사고요인이 잠재해 있으며, 定量 충전여부에 대한 시비와 가스 殘量 확인 不可에 따른 사용상의 불편이 많은 점에서 볼 때,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가스流通構造現代化計剛은 一應 時宜適切하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供給者나 소비자가 모두 共鳴하여야 할 現代化계획에 意外的 反應이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이 계획運用에 再考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정부의 가스流通構造現代化計剛을 배경으로 일부 대기업이 해외의 메이저와 제휴하여 國內市場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은 영세한 국내유통업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所見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Ⅱ. LPG流通構造現代化計劃의 背景과 內容

정부는 前近代의인 충전시설과 공급방법에 의한 現流通構造로는 늘어나고 있는 가스수요와 시설에

대한 안전과 사용상의 便宜확보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앞으로 가스供給者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綜合管理體制를 도입, 사고예방활동과 사용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충전소의 시설현대화와 유통 기능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表-1〉 地域別 充填所 및 販賣店 現況

(83. 11末 現在)

区 分 \ 市道別	서울	釜山	大邱	仁川	京畿	江原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濟州	計
容器專用	5	2	2	11	8	.	.	.	2	.	2	3	1	36
自動車兼用容器	3	13	7	4	14	14	13	9	3	16	12	21	.	129
計(容器充填所數)	8	15	9	15	22	14	13	9	5	16	14	24	1	165
自動車專用	54	10	14	16	10	14	16	2	8	1	11	3	3	162
總計(充填所數)	62	25	23	31	32	28	29	11	13	17	25	27	4	327
販賣店數	587	222	171	58	254	69	56	114	53	80	106	127	7	1,904

〈資料〉 動力資源部

〈註〉 充填所당 平均 販賣店 保有數 : 12個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가스流通構造現代化計劃을 보면, ① 시설기준의 강화로 容器검사 및 자동 충전시설을 확보토록 하고, ② 수송 및 안전장비를 현대화하며, ③ 容器의 소유와 관리책임을 충전소로 一元化하고, ④ 종래의 重量판매를 계량기에 의한 定量판매방식으로 전환하며, ⑤ 공급자의 사용시설 점검의무 부과 등으로 되어 있다. LPG 자체가 지닌 특성, 즉 폭발성의 위험을 生産-流通-사용과정에서 안전관리를 확보하고, 또 관리에 있어서 책임소재를 확립하자는 것이 이 계획의 주안점이 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LPG需要는 60년대초 까지만 해도 容器와 더불어 輸入, 사용할 수 밖에 없었으나, 지난 1964년 油公 蔚山정유공장의 가동과 함께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80년대초부터 정

부의 적극적인 가스보급확대시책에 힘입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여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가스流通규모는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한 채, 상황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83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LPG 사용가구가 1백 7만 9천가구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LPG容器(業所보유 容器포함)는 2백 22만 1천개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일반가정용인 20kg 容器는 1백 72만 6천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表-3〉 地域別 LPG 容器現況

(82. 12. 31現在)

地域 \ 容量別	10kg	20kg	30kg	50kg	計
서울, 仁川, 京畿	234,466	731,694	52,064	80,310	1,108,535
江原	2,430	17,437	1,978	1,875	23,630
忠北	3,925	17,290	1,435	660	23,310
忠南	3,940	19,807	2,810	1,203	27,760
全北	1,305	14,502	2,110	333	18,250
全南	7,123	17,132	3,640	2,605	30,500
大邱, 慶北	6,278	24,162	6,360	5,690	42,490
釜山, 慶南	68,863	369,600	12,482	18,210	469,155
濟州	653	3,160	890	420	5,123
計	338,983	1,214,694	83,769	111,309	1,748,753

〈資料〉 韓國石油가스流通協會

〈表-2〉 LPG 需要推移 및 展望

(單位 : 千噸)

	81	82	83	84	85	86
産業	96	105	115	126	140	156
輸送	197	366	587	645	734	816
家庭·商業	218	227	311	432	576	736
公共·其他	—	29	—	—	—	—
發電	—	—	—	—	—	—
計	511	727	1,013	1,203	1,450	1,708

〈資料〉 動力資源部, 5次5個年 에너지部門 需給計劃(수정)

이와 같은 현실은 물론 유통업계 스스로 対応策을 게을리한데서 연유된 것이기도 하지만, 70년대 말까지만 해도 가스에너지는 政策의 관심권에서 멀었다는 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스流通業界는 政策의 소외지대화된 채 근근히 命脈을 이어올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로 참여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정부의 長期가스普及展望에 따르면, 오는 86년의 가스보급가구수는 총 2백50만가구로 이중 순수한 容器이용가구는 1백만가구에 불과하다.

〈表-4〉 長期가스普及 展望

(單位: 千M/T)

年度別 部分別	82	83	84	85	86	87	88
家庭用	220	296	354	458	580	523 (149)	610 (183)
産業用	91	98	153	169	187	78 (116)	87 (125)
運輸用	330	459	499	544	592	6 628	653
發電用	-	-	-	-	-	- (1,735)	- (1,692)
計	641	853	1,006	1,171	1,359	1,229 (2,000)	1,350 (2,000)
總에너지 中가스比 重 (%)	1.6	2.0	2.2	2.4	2.6	2.1 (3.9)	2.2 (3.7)
가스普及 世帶數 (萬家口)	95	132	170	201	250	219 (69)	245 (79)
普及率 (%)	11.7	17	20	24	30	24 (8)	27 (9)

〈資料〉 動力資源部

〈註〉 ()内는 LNG物量임.

〈表-5〉 家庭用 가스普及 展望

(單位: 萬家口)

區分	82	83	84	85	86
計	95	132	170	201	250
都市가스	17	32	44	59	80
集團가스	20	35	48	57	70
容器利用家口	58	65	78	85	100
普及率(%)	11.7	17	20	24	30

〈資料〉 動力資源部

物量面에서도 가정·상업용으로 58만톤을 예상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都市가스를 제외하면 절반 이하일 것이다. 특히 都市가스보급과 관련시켜 볼 때, 정부의 가스普及施策이라는 것이 容器에 의한 것이 아니라, 都市가스를 주축으로 하는 집단공급체제의 인상을 주고 있다.

Ⅲ. LPG 流通業界의 立場

1. LPG 流通分野의 特殊性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生産과 소비를 연결시켜 주는 流通活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어 필연적으로 流通部門의 근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지난 1980년 「流通近代化促進法」이 제정되면서 유통근대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대량생산, 대량판매체제의 실현을 위한 流通의 大型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작금의 LPG 流通構造現代化計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LPG 流通分野는 다른 분야와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 즉 LPG유통분야는 단순히 생산과 소비를 연결해 준다는 기능 이외에 容器에 移·充填하는 제조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또 유통과정과 최종소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危害로부터 보호해야 할 安全管理責任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公益性보다 企業性을 추구하는 일반기업에서 기피해 온 것이 바로 가스유통분야이다.

따라서 그동안 유일한 生業으로 LPG 流通機能을 전담, 수행해 온 기존유통업계의 사회적 공헌이 경시되거나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 大企業의 市場참여와 問題點

大企業의 LPG 유통분야 진출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국내 LPG시장은 대기업이 신규

〈表-6〉都市가스 普及現況

地 域	業 体	供給(予定)日	製 造 能 力 (m ³ /日)	供給家口数	最大供給 可能家口数
서 울	◎大成産業	72. 11. 14	100,000	62,996	100,000
서 울	◎大韓都市가스	80. 2. 15	150,000	114,315	150,000
서 울	◎極東都市가스	83. 3. 30	100,000	1,750	100,000
서 울	韓逸開發	(85)	150,000		150,000
서 울	江源産業	(85)	100,000		100,000
仁 川	仁川都市가스	(84)	40,000		40,000
京 畿(安養)	◎京仁都市가스	83. 10	40,000		40,000
京 畿(富川)	京畿都市가스	(84)	100,000		100,000
釜 山	◎釜山都市가스	82. 10. 19	120,000	5,000	120,000
慶南(馬山,昌原)	慶南都市가스	(84)	100,000		100,000
慶 南(蔚山)	蔚山都市가스	(84)	50,000		50,000
全 南(光州)	◎海洋都市가스	83. 7. 1	30,000		30,000
全 北(全州)	全北都市가스	(84)	25,000		25,000
全 北(木浦)	木浦都市가스	(84)	30,000		30,000
(◎表: 既供給)					1,135,000

〈註〉1家口当 1m³/日 使用假定(通例)

日本の都市別LPG와 도시가스의 공급현황을 보면, 이러한 예상이 크게 어긋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짐작케 해 준다. 즉 일본의 도시가스 占有 비율을 보면, 東京, 大阪 등 대도시는 80~90%, 기타지역은 30% 정도이며, 全国 평균으로는 대략 40%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앞으로 대도시는 대부분 도시가스화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앞으로의 LPG 시장영역은 中小도시의 소규모 시장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순수한 容器이용 프로판수요량은 82년 기준으로 충전소의 용도별 판매량중 일반용에 해당하는 18만 4천 2백 65톤에 불과하며, 이 량은 LPG

전체판매량인 56만 8천 6백 24톤에 비하면, 32.4%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表-7〉日本のLPG와 도시가스 供給比率

	人 口	世 帯 数	LPG世帯数	都 市 ガ ス 世 帯 数
東 京	11,357,337	4,360,503 (100)	780,000 (17.9)	3,580,000 (82)
大 阪	8,471,793	2,648,455 (100)	431,000 (16.3)	2,306,359 (87.1)
其 他	96,281,148	28,069,168 (100)	18,882,432 (67.3)	9,155,293 (32.6)
計	116,110,278	35,078,126 (100)	20,021,432 (57.1)	15,041,652 (42.9)

〈表-8〉82年 用途別 充填所 販売実績

(单位: 톤)

프 로 판				부 탄			計			
一 般	産 業	自 動 車	計	産 業	自 動 車	計	一 般	産 業	自 動 車	計
184,265	18,158	7,505	209,928	14,835	343,861	358,696	184,265	32,993	351,366	568,624

이와 같은 소규모 시장에 충전소 및 副販店은 83년 11월말 현재로 각각 1백 65개, 1천 9백 4 개로 1개 충전소당 평균판매량은 1천 1백 17톤에 불과

하다.

그러면 앞으로의 LPG수요전망은 어떠한가. 여기에서는 편의상 앞에서 제시한 자료에서 두 가지

를 전제로 하여 오는 90년도의 LPG 사용가구수를 산출하고, 여기에 가구당 소비량을 감안, 총수요량을 導出해 보기로 한다.

즉 82년의 프로판소비량은 가정·사업용이 약 18만톤, 그리고 82년의 LPG使用가구수는 약 78만가구(都市가스 제외)라고 가정하면, 가구당 월간소비량은

$$18\text{萬噸} / 78\text{萬家口} \times \frac{1}{12}\text{月} \times 1,000\text{kg} = 19.23\text{kg}$$

으로 대략 20kg이 된다.

여기에서 83년도 內務部 인구통계를 기초로 年平均 인구증가율 1.5%를 감안하여 오는 90년도의 가구수를 추정한 다음 大中小도시별 LPG 사용비율을 大都市 30%, 中都市 50%, 小都市 30%를 假定하여 90년도 LPG 사용가구수를 산출해 보면, 대략 2백24만가구가 된다.

〈表-9〉 90年度 LPG使用家口數 推定

地域 ¹⁾	總家口數(萬家口)		에너지別構成比 都市가스: 煤炭 : LPG	LPG 使用 家口數 (萬家口)
	83年 (83.6.30 內務部)	90年 ²⁾		
計	842	935		224
大都市	414	460	40 : 30 : 30	138
中都市	120	133	10 : 40 : 50	66.5
小都市	59	65	0 : 60 : 30	19.5
其他	249	277	0 : 100 : 0	

〈註〉 1) 大都市: 特別市, 直轄市, 道庁所在地
 中都市: 其他市
 小都市: 郡庁所在地
 其他: 나머지

2) 年平均人口增加率 1.5%를 家口增加率로 간주

따라서 오는 90년도의 LPG수요량은,
 $20\text{kg} \times 224\text{만가구} \times 12\text{월} = 537,600\text{톤}$ 으로 대략 54만톤이라는 계산이 된다.

90년도의 수요량 약54만톤 정도의 소규모 LPG 流通시장에 대기업의 신규 참여는 시설의 重複投資에 따른 資源낭비는 물론, 유통체계의 多元化에 따른 유통기능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價格정책과 관련하여 막강한 자금력을 배경으로 현대화된 大企業과 기존 中小企業이 공존할 때, 가격격차를 둘 것인지, 소비자의 選好에 맞

길 것인지 하는 것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 하겠다. 앞으로 市場競爭原理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 選好의 가격결정體系는 필연적으로 기존업자의 도태를 가져올 것이다.

더우기 国内 LPG價格결정에는 精油社의 석유류 低價供給(특별소비세 등 諸稅公課金の 과다로 소비자가격은 높다)에 의한 손실을 補填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LPG 單一品目에 대한 신규대기업과의 가격경쟁은 國家에너지政策的인 측면에서 신중히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상황에 미루어 볼 때 기존유통업계에서는 大企業의 LPG시장 참여기도를 安全管理과 소비자보호라는 표면상 名分보다는 輸入權의 확보와 關聯機器개발·판매라는 상업적인 측면이 더 짙게 깔려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유통업계의 입장과 여론을 전제로 할 때, LPG市場의 公正한 경쟁과 資源配分の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LPG가격의 국제가격수준으로의 조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스供給業所의 영세성은 그동안의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이다.

〈表-10〉 年度別 容器充填所 및 프로판 消費 推移

年 度	容器充填所數		프로판消費量(톤)		②/①
	①	增加率 (%)	②	增加率 (%)	
74	25		46,939		1,878
75	27	8.0	41,961	△10.6	1,554
76	35	29.6	45,224	7.8	1,292
77	38	8.6	54,553	20.6	1,436
78	46	21.1	83,715	53.5	1,820
79	54	17.4	121,126	44.7	2,243
80	61	13.0	161,006	32.9	2,639
81	79	29.5	188,770	17.2	2,389
82	94	19.0	234,615	24.3	2,496
83	165	75.5	279,188	19.0	1,692

〈表-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스공급업소의 난립은 지난 81년 정부의 허가자유화조치 이후 더욱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 보면, 群小業者도 LPG사업참여가 가능했던 그 동안의 허가요건과 자본축적이 불가능할 정도의 低마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통구조현대화에 있어서 자본규모의 下限을 두는 엄격한 허가요건과 西歐수준의 마진을 보장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IV. 맺는 말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LPG가 판매경쟁에서 優位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은 일반상품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LPG가 내포하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상품과는 달리 철저한 안전유지와 점검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例示하면 <表-11>과 같다. 따라서 LPG의 生産, 輸入에서부터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각분야에서 장기적으로 競爭의 우위를 확

다. 즉 유통업체는 유통업체대로 그 원인이 低마진과 業所亂立에 있다고 할 것이고,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油価구조에 있다고 말할 것이다.

더우기 정부에서는 그동안 需給의 適正確保와 안전기준의 설정 등 그때 그때 적절한 보완을 거듭해 왔으나, 結果적으로 未來의 狀況變化를 予測한 完璧에는 多少 未洽했다고 보겠다.

한편 LPG의 보급이 機器, 器具의 개발과 비례하며, 또 기기나 기구의 품질이 安全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참여자의 구상은 충분한 名分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관장기관마저 서로 외면하던 LPG分野에 유일한 生業으로 종사해온 기존업체가 도태되는 일이 없도록 우선적 配慮를 해 줌으로써 그동안의 경험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투자의 중복도 사전에 조정할 수 있을 것임은 물론 오늘날까지 형성되어온 가스流通構造를 혼란없이 현대화시킬 수 있으리라 믿는다.

메이커나 기존유통업체도 지금까지 政府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안이한 사고와 자세를 탈피하고, 상황변화에 対応할 수 있도록 경영의 근대화·합리화 대책에 솔선해야 할 것이다. 메이커는 자신의 경영 자세에 의해 모든 것이 歸結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유통업체 나아가서 국가이익을 위한 적절한 영업정책의 전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既存流通業界는 소규모보다 地域別 協業化를 자진 형성, 앞으로 전개될 現代化추진에 상응하도록 流通構造 개선에 적극 노력, 업계의 전진한 발전을 위한 自力的인 협조체제의 구축이 당면한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 하겠다. *

<表-11> LPG와 一般商品의 특징비교

一 般 商 品	L P G
品 質 優 位	正量으로 信賴度 確保
包 裝 美 化	容器管理의 徹底
對 顧 客 親 切	流通段階別 安全維持
事 後 管 理	消費先의 点檢과 啓導

보하기 위해서는 「安全을 판다」는 자세가 基本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正量에 대한 시비와 容器管理에 따른 문제 등이 발생되었고, 消費先에 대한 점검이나 계몽에는 소홀했다는 感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에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

지각없는 외제선호

부리썩는 경제질서